

# “5·18은 도대체 누구의 것입니까?”

### 5인의 시의원, 5월 광주에

### 릴레이 작심 발언 쏟아내

### 진상규명·기념행사 등 질타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광주시의원들이 5월 단체와 기관, 기념행사 등 ‘5월 광주’에 쓴소리를 뱉어냈다.

정다운·심창욱·채은지·강수훈·이명노 의원은 11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응답하라! 1980’을 주제로 5분 릴레이 발언을 이어갔다.

의원들은 이례적으로 릴레이 발언 형식을 빌

려 5월 단체를 비롯해 광주시, 기념재단, 기록관 등 관련 기관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5·18은 누구의 것인가?”를 주제로 발언에 나선 정다운 의원은 “5·18은 개인이나 특정 조직의 것이 아니다”며 “광주의 혼과 열에 관한 문제이고, 대한민국을 바꿨으며, 세계가 기억하는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역사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정부는 재정지원에 그쳤고, 대부분의 정치인은 선거할 때만 찾았다”며 “광주시는 국비만 내려오면 기계적으로 전달만 했다”고 질타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심창욱 의원은 허술한 망월 묘역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심 의원은 “올해 1월 광주시 고령사회정책과가 파악한 묘역현황 자료와 실제 존재하는 묘지의 기수조차 달랐다”며 “같은 시점에 고령사회정책과가 가진 묘역현황 자료와 5·18 선양과가 가진 묘역현황 자료 역시 서로 묘지 기수가 다르다”고 밝혔다.

5·18 기념재단에 대해선 “코로나에도 사업을 취소하거나 축소할 사업이 없다”며 “사업 결과 보고서를 보면 그저 사업 연장을 위한 사업과 단체를 위한 행사를 강행한 것이라는 여론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채은지 의원은 “기록물

평가와 선별은 5·18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절차”라며 “그러나 기록관의 기록물 수집 및 보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시스템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공법단체인 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공법단체 이외의 단체가 5·18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공문을 광주시에 보낸 데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강수훈 의원은 “5·18 행사위원회가 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의 제명을 논의하는 절차가 시작된 이후, 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5·18행사위원회에서 탈퇴한 이후 벌어진 일”이라며 “오월 단체는 분열되고 갈라졌다”고 우려했다.

5·18 기념행사에 대해서도 “49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행사지만 여전히 식상하다”며 “끊임없이 질문하고 토론하며 더 늦기 전에 5·18 기념행사가 쇄신하고 변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주자로 나선 이명노 의원은 5·18교육관의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5·18 교육을 담당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5·18 이름만 빌린 교육관일 뿐이다”며 “강의실, 세미나실, 생활관을 담은 대관용 시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5명의 의원들은 끝으로 “우리 모두는 1980년 5월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라며 “5·18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라고 물으며 릴레이 발언을 마쳤다.

광주시의원들이 5·18을 앞두고 ‘5월 광주’를 주제로 릴레이 질의에 나선 것은 1991년 시의회 개원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다. /길용현 기자



발산 뽕뽕다리 48년만 개통

광주시 서구 양동 발산마을과 북구 임동 방직공장을 잇던 추억명소 ‘발산 뽕뽕다리’가 11일 오후 48년만에 다시 개통됐다. 이날 강기정 광주시장, 송갑석 국회의원, 김이강 서구청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통식에서 내외빈들이 축하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김태규 기자

## 전남도, 첨단농산업 융복합지구 쟁점음

### 용역 중간보고회 갖고

### 진흥원 설립 등 협의

전남도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전남도는 11일 ‘인공지능 첨단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설립 등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

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문금주 행정부지사와 인공지능·로봇·정보통신기술(ICT)·에너지·자율주행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용역업체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환 서울대 연구위원의 보고와 질의응답, 토론으로 진행됐다.

안 연구위원은 국내외 사례를 통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농업 분야 연관 산업을 집적한 융복합 지구 설립 당위성 등을 발표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농업에 융복합해 첨단농산업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인공지능 국립 첨단농산업진흥원 및 농업 빅데이터 센터 설립과 로봇·자율주행·인공지능·센서 등 신기술 및 제품이 상용화되는 ‘도전-시험-실증-인증-장소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전남이 항공·항만·KTX 등 교통 기반시설이 우수할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산업 거점 및 대규모 디지털 기반시설 구축 유망지로 떠올라 첨단농산업 기반 확충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 “민간공항 무안 이전 파기 발언 ‘협약’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

### 김 지사 “무안이전 국가계획”

전남도가 11일 김영록 지사가 전날 밝힌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 협약은 파기된 거나 다름없다’는 발언의 진의를 설명문을 통해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전날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논의를 위해 강기정 광주시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김 지사는 2시간에 걸쳐 이뤄진 마라톤 회동을 마친 후 강 시장과 ‘시·도 합办的 공동 발표문’을 발표한 후 “이번 발표가 2018년 8월 협약을 대체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2018년 8월 협약은 민선7기 당시 광주·전남·무안군 3자간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2021년까지 이전하기로 약속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이다.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당시 협약은 민간공항을 우선해 전남도에 보내낸 군공항 이전 문제

에 (전남도가) 적극 협력하겠다는 취지였는데, 그 뒤로 광주에서 군공항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보낼 수 없다고 해서 사실상 그 협약은 파기된 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답변은 그동안 변함없이 광주시에 요청해온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 협약’ 준수 촉구 기조를 180도로 뒤집은 것이냐는 등 다양한 해석을 낳게 했다.

이에 전남도는 설명문을 통해 김 지사가 전날 밝힌 답변의 진의를 “2020년 12월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을 이행하지 않기로 먼저 선언함에 따라 협약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군공항 문제가 해결되면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것이 전남도의 일관된 입장이며, 이는 이미 국가계획에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 광주시, 건축물 ‘높이제한’ 종료

광주시는 11일 “지난 2021년 7월 시행한 ‘건축물의 높이관리 원칙’ 운영종료를 위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는 지난 2월 강기정 시장이 발표한 ‘광주 도시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향상 추진방

안’의 후속조치다.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다채롭고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과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층수 규제 기준을 ‘2040 광주광역시 도시경관계획’ 수립 시기에 맞춰 종료할 계획이다. /길용현 기자





###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때 “여보야”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 가장 합리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여보야

- ✓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중 **최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남성회원은 **2~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성혼이 가능합니다.
- ✓ 여성회원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운로드하기   